

작년 광주 출생아 7.7% 증가... 출산 회복 뚜렷

지난해 광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출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가통계포털(KOSIS·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6017명으로, 전년 동기(5587명) 대비 7.7%(43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6.2%)을 웃도는 수치로, 출생자 증가세가 뚜렷했다.

혼인 건수도 같은 기간 542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315건) 증가하며 결혼 증가 흐름이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광주시가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출생 정책과 실거주여건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결혼, 임신, 출생, 양육, 일·생활 균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양육 초기 소득 감소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키움 올인(ALL IN) 광주 4대 케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주요 지원은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다태아출산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 ▲공공신야 어린이병원, 난임부부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등 의료 지



2025년 1~11월 인구동향 분석... 혼인·출산 동반 상승 아이키움 정책 결실... 올 2909억 투입 52개 과제 추진

원 ▲손자녀 가족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임원아동돌봄, 삼삼오오 이웃돌봄 등 돌봄 지원 ▲임신부·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등 일·생활균형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올해 저출생 대응을 위해 52개 과제에 총 2909억원을 투입하는 '광주아이키움 2.0'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출산 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출산 이

후 자녀 양육까지 함께하는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임신·출산·돌봄 분야 지원 확대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인상, 누리과정 추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가시화됨에 따라 주거·일자리·양육 지원 정책의

재정적·제도적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통합이 실현될 경우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생활 지원이 강화돼 지역 출산율 개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2032년까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혼인과 출생 증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맘 편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영길 기자

정성 깃든 은빛장터서 설 선물 구매하세요

전남도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서 최대 30% 할인기획전
김치류·장류·참기름·쿠기·부각·누룽지·주스 세트 등 다채

전라남도가 설을 앞두고 어르신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생산품을 판매하는 '은빛장터' 할인 기획전을 전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추진한다.

은빛장터는 노인 일자리 35개 공동체 사업단에서 어르신이 직접 생산·가공한 생산품을 온라인·오프라인 판매·홍보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르신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은빛장터(<https://url.kr/6t1i6v>)에서 김 3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 등 최대 30% 할인 행사를 마련, 명절 선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남도장터에서 판매하는 노인 일자리 생산품은 ▲여수시니어클럽 고추장 500g·원장 500g·간장 500ml 선물박스 2호 43,000원 ▲완도시니어클럽 김·유자사과 주스 세트 등 다양하게 준비됐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은



빛장터는 어르신 일자리 생산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세대가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따뜻한 장'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께서 직접 만든 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건강한 사회 참여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이어지도록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35개 사업단 123개 사업을 추진, 명절 등 온라인·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98억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신종팔 기자

전남도, 귀농어귀촌 정착형 주거 '새뜰하우스' 추진

빈집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임대... 올해까지 총 60동 확보

전라남도는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전남형 새뜰하우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뜰하우스는 농어촌 지역 빈집을 시군에 4~6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은 귀농어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전입 가구원 수에 따라 3인 가구 이상 월 1만 원, 2인 가구 월 5만 원, 1인 가구 월 10만 원이다.

이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사업의 명칭을 '새뜰(settle)하우스'로 변경한 것으로, 단기 채

류 중심이 아닌 정착형 주거지원 사업이라는 정책 취지를 명확히 했다.

새뜰하우스에 입주한 진도군의 한 젊은 부부는 "귀농·귀촌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던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진도에서 누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4년부터 매년 20동씩 새뜰하우스를 조성했으며, 올해까지 총 60동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23동이 준공됐고, 이 가운데 13동은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빈집살이나 리모델링 주택 임주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 귀농어귀촌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부터 채워, 주거, 창업, 공동체 정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11개 사업에 총 4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귀

농어귀촌 정책은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계별 채워와 주거, 창업, 공동체 정책을 연계해 안정적 농어촌 정착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맞춤형 통상다터제로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전남도, 수출 증가와 준비 기업 대상 수시로 모집

전라남도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지원 사업인 '2026년 통상다터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통상다터제는 수출 경험이 부족하거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무역·통상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 기업별 전담 컨설턴트로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2017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139개 사를 지원해 29개사가 1천636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실질적 밑거름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컨설턴트 선정 방식을 기존 인력풀(Pool)제에서 공개 모집·선정 방식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선발된 전문가가 기업을 전담해 더욱 책임감 있고 수준 높은 컨설팅

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전문가와 1대 1로 매칭해 ▲무역계약 및 통관 상담 ▲마케팅 발굴과 매칭 ▲해외시장 조사 ▲마케팅 전략 수립 등 기업별 상황에 맞는 전담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나 수출 준비 기업이다.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국제협력관실(061-286-2441)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42/38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기업 현장 애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상다터제가 든든한 전담 조력자가 되도록 세밀히 관리하겠다"며 "전남의 우수한 제품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